



삶의 모든 것을 동심의 세계로 표현한 샤갈

유재현

문화 에디터

삶이 아름다운 것 같아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결코 아름답지는 않다. 아름다움 뒤에 숨어 있는 가시가 우리의 가슴을 사정없이 찌르고 있기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평탄하지 않는 삶이지만 그래도 그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았던 화가가 샤갈이다. 그는 세계대전이라는 격랑의 파도에 휩쓸리면서도 한 순간도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마르크 샤갈(1887~1985)은 1887년 러시아 비테프스크에서 가난한 유대인 가정 9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전원적인 분위기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생활은 평화로웠다. 샤갈의 어머니는 장남에 대한 기대로 그를 유대인은 공립학교에 진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주고 공립학교로 전학시킨다. 어머니 덕분에 샤갈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탈피해 점 더 넓은 세상과 만나게 된다.

다방면에 재능이 많았던 샤갈은 그림을 공부하지만 늘 궁핍했다. 교육도 별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삶이었지만 그는 독특한 개성과 기질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 처음부터 두각을 나타내지만 샤갈은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미술학교에서 그림을 공부하고 있던 샤갈은 1909년 스물 두



살 여름에 고향 비테프스크를 방문하게 된다. 샤갈은 여자 친구의 집을 놀러온 아홉 살 어린 벨라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 샤갈과 벨라는 러시아 유대인 구역에 같이 살고 있었지만 샤갈은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었고 벨라 로젠펠트는 대규모 상회를 운영하는 부르주아 집안의 딸이었다.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였던 그녀는 모스크바에서 역사와 철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다.

서로 이질적인 존재였지만 두 사람은 열열히 사랑을 한다. 하지만 샤갈은 사랑하는 벨라를 러시아에 남겨놓고 그림을 공부하기 위해 유대인 후원자의 도움으로 프랑스 파리로 떠난다.

파리에서 샤갈은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다. 생선도 하루는 머리, 다음날은 꼬리로 나누어 먹었으며 캔버스도 재사용해 다시 그렸다. 그곳에서 샤갈은 그림에 대한 열정 하나로 버텼다. 그는 미술관이나 전시회를 찾아다니면서 탐구하기 시작한다. 지루한 생활에서 가장 설레고 기다려지는 시간들이었다. 그는 놀라운 속도로 이전의 화풍에서 탈피하여 자신의 색채를 확고히 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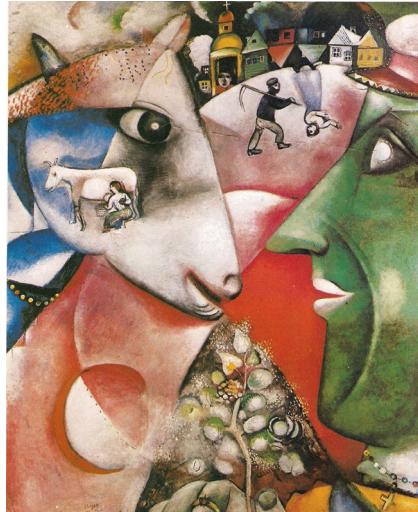
“파리에서 나는 모든 것, 특히 직업으로서의 예술을 발견한 것 같다. 나는 미술관과 살롱전, 어디에서나 나를 알려야 했다..... 어떤 미술학교도 내가 파리에서 열린 전시회와 그곳의 전시 작품들, 파리의 미술관에서 흥미롭게 발견한 것들을 가르쳐주지 못할 것이다.”

샤갈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린 작품이 <나와 마을>이다.

파리에서 샤갈이 첫 번째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화면 오른쪽의 녹색의 옆얼굴을 반쯤 보이고 있는 사람이 샤갈 자신인 ‘나’다. 유태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샤갈은 자신의 얼굴의 특징을 날카로운 삼각형의 코로 표현했다. 화면 속에 말이나 양에서 젖을 짜는 여인, 건물, 농부 등은 고향 비테프스크의 모습을 묘사했다.

이 작품에서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농부와 건물은 샤갈에게 고향이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꿈의 세계를 뜻하고 있다.

샤갈은 결혼을 위해 러시아로 돌아간다. 벨라의 집안에서는 좀더 좋은 집안의 사위를 맞이하고 싶어 결혼을 반대했었다. 하지만 신분의 차이를 뛰어 넘어 두 사람은 1915년 결혼을 한다.



나와 마을

❖ 미술풍경

샤갈이 결혼해 두 사람의 행복한 생활을 그린 작품이 〈전원의 창〉다. 이 작품은 행복하고 편안한 신혼생활을 집으로 표현하고 있다.

두 사람은 커튼을 걷고 창밖의 녹색의 정원을 바라보고 있다. 붉은색 항아리와 과일, 커피 잔 등이 놓여 있는 창가 앞 선반은 그들의 소박한 삶을 나타내고 있으며 과일과 붉은색의 항아리는 자연에게 바치는 선물을 의미한다.

두 사람의 얼굴이 포개져 있는 것은 행복이 심정을 나타내며 자작나무가 울창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결혼으로 아름다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결한 백색의 커튼은 그들의 결혼의 감정을 암시한다.

러시아에서 샤갈은 정치적 위험을 피하고자 비테프스크에 있는 벨라의 집에서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하기보다는 사태를 관망하고 있으면서 그럼 그리기에 열중했다. 샤갈은 정치적 격변기 중심에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아내 곁에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가졌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샤갈은 조국 러시아는 떠나 프랑스로 망명을 한다.

“나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예술적인 이유로 러시아를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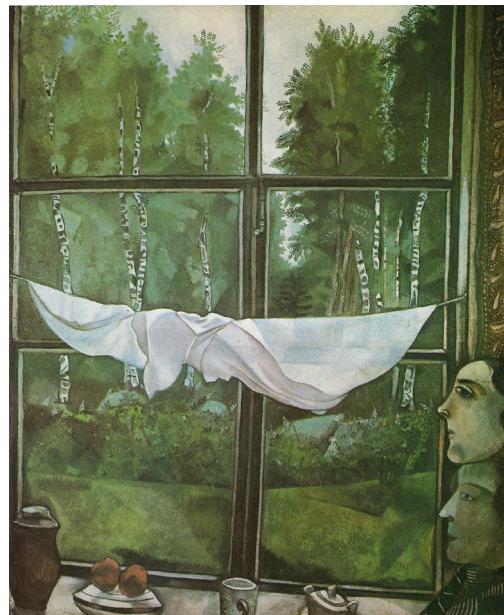
파리에서 벨라는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그녀는 내성적인 샤갈을 대신해 사람들을 만나는 대외적인 일을 했다.

샤갈은 파리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면서 행복한 감정을 환상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파리에서의 평화로움은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 깨진다.

당시 유대인은 재산이나 명성, 작품을 소유할 수 없었다. 유대인으로서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던 샤갈은 비시 정부에서 공포한 반 유대인법 때문에 프랑스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는다.

샤갈은 마티스, 피카소 등 남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가들을 피신시킬 목적으로 기획된 뉴욕 현대 미술관 초청을 받아 뉴욕으로 망명을 한다.

샤갈과 벨라는 거대한 뉴욕에 매료된다. 유럽에서 볼 수 없었던 자유와 활기를 느



전원의 창



졌다. 하지만 샤갈은 영어 배우는 것을 거부하고 벨라는 도시의 소란스러움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전쟁만 끝나면 파리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했다.

파리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시골로 여행하는 것을 즐겼다. 1943년 에디론댁 산맥에 있는 크랜베리 호숫가에 작업실에서 샤갈과 벨라는 파리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피서지 작업실에서 얻은 전염병 때문에 벨라가 쓰러지고 만다.

30여년이 넘는 동안 샤갈의 여신이었던 벨라는 크랜베리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병원에 입원한지 3일 만에 죽음을 맞이한다. 1944년 벨라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진 샤갈은 9개월 동안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벨라가 없는 미국에서의 생활은 샤갈에게 부담스러웠다. 또한 프랑스에 대해 변함 없는 애정이 그를 미국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 결국 샤갈은 두 번의 망명을 걸쳐 프랑스 파리로 돌아온다.

1952년 봄 벨라가 죽은 지 8년 만에 샤갈은 유대계 러시아인 발렌티나 브로드스키와 운명적으로 만난다.

발렌티나 브로드스키의 타고난 품성과 교양에 매료된 샤갈은 65세 인 1952년 재혼을 한다. 샤갈의 새로운 사랑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5세 연하의 미모의 바바와 결혼식장을 나오면서 샤갈은 ‘이제야 제2의 청춘이 열렸다.’라고 외쳤다.

바바는 샤갈의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30여 년 동안 그의 곁을 지킨다.

말년에 샤갈은 성서를 주제로 한 작업에 몰두하지만 그를 종교화가라고는 하지 않는다. 성서를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샤갈 특유의 인물들은 절대적인 자유로움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것은 어떤 종교화에서도 볼 수 없는 표현방식이다.

마르크 샤갈(1887~1985)은 회화뿐만 아니라 도자기, 조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펼친다. 그는 미술사조에 쫓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몽환적으로 그림 속에 담았다. 그것은 가난한 유대인으로서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없었던 그의 환경에서 비롯되었다.

자신의 주변의 모든 것을 이미지화 시킨 샤갈의 특유의 표현방식은 어떤 현대 미술 사조에도 속하지 않는다.

샤갈의 독자적인 시각은 현실과 전설적인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늘 양면성을 지닌 모순되고 형이상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은 자신의 문화 세계와 원초적인 종교 세계를 초월하는데 그것은 그의 주요 욕구 가운데 하나이다.

